

2002 가을호

서른넷



사랑이 있는 푸른 우리 마을



<http://www.childcancer.or.kr>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발족!



신 희 영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이사
서울대 의대 교수

2000년 12월 16일.

보건복지부는 재단법인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설립을 허가하였습니다. 소아암 관련 국내 최초의 재단 법인이 발족된 것입니다. 1991년 11월 21일 백혈병어린이후원회로 시작한 지 9년만의 일이었습니다.

아무런 기반도 없이 시작한 작은 모임이었지만 이 땅의 소아암 어린이들과 가족들을 위해 헌신한 이사진과 직원들의 열성, 그리고 후원자와 자원봉사자들의 사랑이 함께 하여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초대 이사장직을 맡아주신 송상현 서울대 법대 교수님의 사회적 덕망과 높은 신뢰감, 박헌서 한국정보공학 회장님의 기본재산 쾌척, 그리고 우정사업본부의 우체국 헌사랑의집 설립지원 등이 3년여의 법인설립 노력에 결실을 맺게 한 것이었습니다.

재단법인 설립 허가는 도약기에 들어서 더 많은 사업을 수행하는데 걸림돌이었던 문제들을 해결하였고, 또한 기관의 대외적인 공신력과 신뢰감을 더욱 높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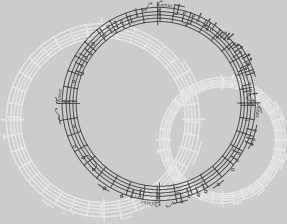
'이 법인은 백혈병, 소아암 환아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복지서비스 제공 및 백혈병, 소아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모으기 위한 제반 사업 수행을 통하여 백혈병, 소아암 환아의 의료적 처치 유지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단 정관 제1조에 명시된 설립 목적입니다. 소아암의 발병은 단순한 의료적 치료 문제뿐만 아니라 한 가정의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어려움을 유발합니다. 개인이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찬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재단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적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제일생명직업, 우체국 헌사랑의집 운영 등 쉼터 운영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재단 사무국과 쉼터에는 전문 사회복지사들이 배치되어 정서적, 정보적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매년 여름, 행정자치부의 지원을 받아 실시하는 형제캠프는 형제의 소아암 발병으로 가족 내에서 소외되고,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형제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동생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 건강하게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다'고 기도했다는 예쁜 마음이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부탁이 있는데요, 백혈병 치료한다고 공부를 소홀히 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는 백혈병은 치료가 되었지만 학교 공부를 제대로 받지 못해 사회 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어느 완치어린이 어머니의 전화는 재단이 해야 할 또 하나의 사명을 제시해 주시고 있습니다. 바로 많은 비용과 수고를 들여 완치된 어린이들이 우리 사회의 훌륭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게 돕는 일입니다.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의 출범은 우리나라 백혈병, 소아암 어린이관련 복지 사업의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다음호에 계속)



형제캠프 집단상담 프로그램 마지막 시간

고학년 캠퍼들을 대상으로 하여 '다함께 노래를'이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고학년 캠퍼들이 캠프에서 자신이 느낀 점, 소아암에 대한 생각 등을

희망적인 메시지의 노래로 만들어 봄으로써 캠프생활을 정리하는데 그 취지가 있었습니다.

아래 곡들은 그 중 2곡을 발췌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곡에 가사를 바꾸어 표현하였는데

소아암 형제들이 얼마나 기특한지 함께 느껴 보세요!



'산바람 강바람을'
이미연, 박수연 캠퍼가 함께 개사한 곡입니다.



초록조의 발표모습



'섬집아기를'
신나단, 이세환 캠퍼가 함께 개사한 곡입니다.

2002년도 소아백혈병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확대 시행을 알려드립니다.

유 원 권

보건복지부 보건증진국 암관리과 과장

■ 보건복지부는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소아백혈병 환자 중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현실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기준을 대폭 완화하였으며, 1인당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다음과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인 소득 및 재산기준에 있어 4인 가구 기준으로 종전 월평균 소득 149만원에서 294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재산기준은 5,400만원에서 18,000만원을 적용토록 하는 등 지원 대상자 선정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 또한, 병원치료비의 경우도 본인부담금 외에 비급여 약제비(주사제 포함)도 지원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지원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액 범위를 종전 5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기준 (단위:만원)

구 분	가구규모	2인 이내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이상 가구
소아백혈병환자 지원기준		231	256	294	352	367

· 재산기준 (단위:만원)

구 분	가구규모	2인 이내가구	3~4인 가구	5인 가구 이상
소아백혈병환자 지원기준		16,500	18,000	20,000

※ 부채가 있는 경우에는 보유재산에서 감액 산정함.

■ 지원절차

- 지원대상자 선정은 본인의 신청(보건소에 신청)에 의해 자격 심사 후 결정되며, 의료비 지원방법은 영수증 및 관련서류를 보건소에 제출하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환자의 보호자)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십시오.

- 의료비 지원 신청서(보건소 비치)
- 주민등록등본 1부
- 진단서(진료기관 발행) 또는 진료비 영수증 1부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1부
- 등기부등본(건물/토지 포함) 1부
- 부채증명서 1부
(부채가 있는 경우, 금융기관 및 공적기관 발행)

▶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는 거주지 소재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

사랑이 모이는 곳

얼터너티브 헤어클럽 어린이파티



지난 8월 23일 롯데월드에서 100여명의 소아암 가족과 얼터너티브헤어클럽 회원(미용인)들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소아암 아이들의 치료 때문에 가족나들이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가족들은 모처럼 온가족이 모여 놀이기구도 타고, 예쁜 스카프도 쓰고, 페이스페인팅도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을 예쁘게 꾸며주셨던 얼터너티브헤어클럽 여러분, 장소를 제공해주셨던 롯데월드 여러분, 참석해주셨던 모든 소아암 가족들! 감사합니다.

에피소드1. 용기는 이름과 너무 다르게 겁이 많아서 놀이기구를 하나도 못 탔답니다. 덕분에 용기어머니는 놀이기구 경주도 못하셨습니다!

에피소드2. 현이는 놀이동산에서 중일 잠만 잤습니다. 그 덕분에 현이 어머니도 하나도 못 타셨나구요? 천만에요~ 현이는 다른 어머니께 맡겨두고 열심히 타고 오셨답니다.

사랑의 열매와 함께 하는 아름다운 월급봉투



헌 사랑 벤처릴레이 캠페인은 큰사랑을 나누자는 뜻으로 매달 기부자가 약정한 후원금이 급여 통장에서 공제되는 정기적인 직장모금 캠페인입니다.

지난 7월 2일 신림청소년쉼터 '우리세상'에서 진행된 전달식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벤처기업협회,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에서 참석하였고, 우리 재단은 '소아암 환자 쉼터의 접근성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사업'으로 5천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앞으로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쉼터에 컴퓨터실을 마련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헌 사랑 벤처릴레이 캠페인에는 터보테크, 로커스, 핸드소프트, 다산 인터넷, 다산 R&D, 메디다스, 오피콤, EZ Digital, 세나소프트, 기프코닷컴, 카티정보, 소프트비전, 퓨처테크, Eflux, 인디시스템, 퍼스넷인터내셔널, 서두인칩, 이셀피아, 디자인스툼, 미디어피아, 인터그런트 테크놀로지스, R&D, 시큐어테크, 모디아소프트, 엔젤로또, 닉스테크, 모디아테크놀로지, 이폴리머, 두리정보통신, 한국인트라넷, 엘릭텍정보통신, 이모션, 혁신정보시스템 총 33개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KT 집전화로 희망을 거세요



집전화로 휴대폰에 건 요금과 시내통화 요금 1%를 적립하여 기부하는 캠페인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선택이 모여 많은 소아암 어린이들에게 큰 기쁨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참여하시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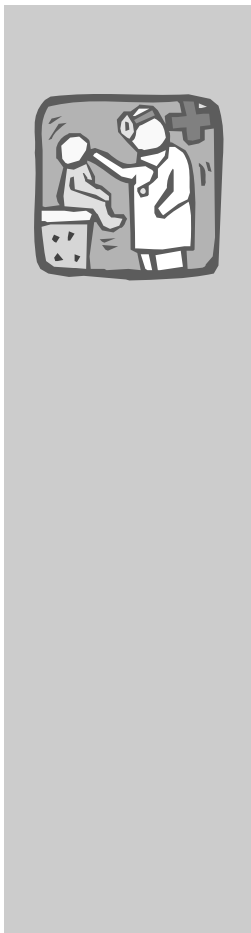
첫째, 인터넷을 이용하여

1. <http://1516.kt.co.kr> 로 접속합니다.
2. 기부전화신청을 클릭합니다.
3. 신청고객 이력사항, 기본사항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4. 서비스 유형에서 '기부전화 신청'을 선택합니다.
5. 신청하면 신청항목이라는 창이 뜨는데, 그 중 '생명전화'를 선택합니다.
6. 생명전화를 선택하면 네모난 박스가 생기는데, 이 중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클릭!
7. 익명을 원하시면 익명여부에 클릭을 한 후 등록 버튼을 누르면 끝입니다.

둘째, 무료전화 1516으로 전화하여 '4번'을 누르시고 캠페인에 참여하신 후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덮어두고 싶은 기억

전화버튼을 눌렀다. 받지 않았다. 혹시 인터뷰를 원하지 않는 것인가? 걱정이 된다.
 한참만에야 통화가 되었다. “저... 할까말까 망설여지네요!” 사진을 넣지 않겠다고 약속한 후에야 인터뷰 승낙을 받아들 수 있었다.
 아직은 쉽게 꺼내놓기 힘든 기억인가보다.



흐린 기억

10월쯤이었던 것으로 기억돼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복도에서 친구랑 장난치다가 옆구리를 부딪혔어요. 그때부터 옆구리가 조금씩 결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심하게 부딪혀서 그런가보다 하고 넘겼는데, 몇 달이 지나도 계속 결리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내과에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하더군요. 대전에 있는 종합병원을 갔더니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해서 서울아산병원으로 오게 된 거죠. 유잉육종! 그리 흔한 병은 아니었어요. 치료를 1년쯤 넘게 받았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을 휴학하고 거의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처음엔 바로 수술을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이 상태에선 너무 위험해서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항암치료와 방사선치료를 받았죠. 치료받은 지 1년 정도 지난 후에 수술을 했어요. 치료당시 기억이요? 처음엔 암담하기만 했죠. 누구나 하는 생각 있죠? 이런 들어보지도 못한 병이 왜 나한테만 생겼을까... 뭐 이런 생각들... 암이라는 것이 나에게 직접 닥쳐올 지는 꿈에도 생각 못했으니까요. 치료하면서 약물 부작용 같은 것으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약물 들어가면 거의 진통제로 견딜 수밖에 없었거든요. 4~5일 정도 물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처음 약물 들어가던 때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약물 들어가고 2주쯤 후에 퇴원해서 집에 갔을 때 머리카락이 빠져서 그냥 삭발했거든요. 정말이지 그 참혹함이란... 눈물밖에 안 났어요. 가족들에게까지 창피해서 제 방 밖으로 나가지도 못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엄마, 아빠, 오빠 다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치료받으면서 몸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때가 또 사춘기 때니까 더 힘들었나봐요.



곽효영

1982년 4월 22일 생

1995년 초등학교 6학년 때 유잉육종(윙스싸이코마) 진단

1997년 치료종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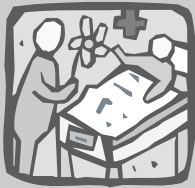
1999년 재발

2000년 치료종결

현재 대전보건대학 의무행정과 재학 중



수술, 재발, 또 한번의 수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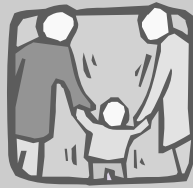


전 갈비뼈에 종양이 있었기 때문에 갈비뼈를 잘라내는 큰 수술을 받았어요.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정말 너무 아픈 느낌밖에 없었어요. 역시나 생각나는 사람은 가족밖에 없었고요. 수술 뒤에 두세 차례 정도의 약물치료를 하고는 치료를 마쳤어요. 혈액종양이 아니기 때문에 백혈병보다는 기간이 짧았죠. 그리고는 다음 년도에 학교를 복학했어요. 그러다 3년 뒤에 다시 재발을 했죠. 그리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지만 수술은 필요하다고 해서 또 한번의 큰 수술을 했어요. 이번이 마지막일 것 같히 바라면서...

수술 뒤엔 그냥 정기검진을 받으면서 병원을 다녔고, 며칠 전에도 다녀왔어요.

기쁜 소식! 이제 검사 받으러 오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감사



사실 기억하기도 싫고, 기억해봤자 힘들었던 생각밖에 안 들지만, 한편으론 그때의 경험들로 인해 느낀 것도 많아요.

일년동안 병원의 그 딱딱한 보호자침대에서 항상 선잠으로 지내신 엄마에 대한 사랑이 제일 많이 느껴졌죠. 아무래도 가족에 대한 느낌이 남달라졌죠.

엄마는 항상 말씀하세요. 엄마가 기도 열심히 해서 살았다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플 땐 그 상황이 너무나 원망스럽거나 자신이 비참해 보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은 달라요. 제가 아픈 것으로 인해 배운 것도 많다고 느껴요. 이건 내게 내린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적이 많거든요. 이런 경험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미술학도



전 지금은 대전보건대학에 다니고 있어요. 의무행정과! 어찌다보니 또 병원과 관계된 과에 오게됐네요. 하지만 전 그림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미술교육과 쪽으로 편입을 생각 중이에요. 미술 선생님이 되고 싶거든요. 지금 준비중이에요. 할 수 있겠죠?



심터에서는...



백혈병어린이완치기원 도보국토순례 "대한민국만세! 백혈병어린이만세!"

- 일 시 : 2002년 7월 25일부터 8월 8일까지 15일간
- 누 가 : 홍승표(완치어린이), 홍순각(재단사무국장), 남현석 · 조재기(자원봉사자)
- 취 지 : 소아암 어린이들에게 완치의 희망을 제공하고, 소아암 어린이를 위한 후원자 모집
- 코 스 : 부산-김해-밀양-청도-경산-대구-김천-추풍령-대전-공주-서정리-천안-오산-안양-여의도-용산
- 후 원 : 우정사업본부, 경북체신청, 부산체신청, 서울체신청
- 걷는 동안 도움을 주시고, 함께 걸어주신 부산체신청, 경산우체국, 김천우체국, 김해우체국, 마산우체국, 밀양우체국, 부산강서우체국, 안양우체국, 여의도우체국, 영동우체국, 오산우체국, 청도우체국, 경북대학병원 달리기동호회, 경북대학병원 이건수 선생님, 동아대학병원 이영호선생님, 서울대학병원 안호섭 선생님, 충남대학병원 박경덕 선생님, 그 외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childcancer.or.kr/walkevent/start.asp>)를 클릭하세요!

♥ 함께 걸었던 조재기군의 일기를 통해 15일간의 대장정을 느껴보세요!

7월 25일

아스팔트 위를 걷는 지는 한줄기 바람에서 행복을 느낀다.



7월 26일

아픔이란 같이 걷는 이의 아픔을 함께 나누지 못한 그 가슴의 쓰라림을 아픔이라고 한다.

힘찬 행보의 두 번째 날에 조그마한 역경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허나리는 걸 알기에 우리는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7월 27일

희생...

지신의 몸을 바쳐 다른 이의 몸보신을 위해서...

스스로를 희생하는 것...

7월 28일

인정이란 말없이 건네주는 과잉과 걷는 이를 향해 흔들어주는 손과 대한민국을 와쳐주는 일꾼들에게서 느끼는 피스함.



7월 29일

어리석음이란 대구에서 한밤에 PT 체조 1번을 스키티어 입고 300회 반복 실시하는 것이다.

7월 30일

공존이란 인간의 도로에서 죽은 동물이나 개구리를 보지 않는 것이다.

7월 31일

눈물이란 눈에서 나는 물이 아니라, 이마의 땀이 눈에 들어가서 떠가워서 흘리는 아픔의 목소리....ㅠ.ㅠ



8월 1일

동지배란 같은 의미를 품고 다른 출발지에서 어찌나 한번 마주 칠 때, 서로간에 페이팅을 왜겨주는 것.

8월 2일

시도란 험기 힘든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고 싶었던 일을 처음 하는 것이다.



8월 3일

도움이란 공학때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는 것이다.



8월 4일

종말이란 내가 우리 부모님을 이기는 날이다.

8월 5일

포기란 자신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것이다.



8월 6일

상쾌함이란 비를 맞으며 기쁨 터질 듯 소리를 지른 뒤에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한 뒤에 한숨 쉰다는 것.



8월 7일

꽃이란 사랑이란 단어의 동의어이다.

광주 우체국 은사랑의 집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7월 13일, 14일 장성에서는 전남대병원에서 치료받는 13명의 소아암어린이 가족들이 참가하는 캠프가 있었습니다. 신나는 물놀이 잔디썰매타기, 캠프파이어 등을 하며 오랜 만에 활짝 웃는 아이들과 부모님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특히 캠프파이어시간에는 모든 가족들이 나와서 장기자랑의 시간을 가졌는데 다들 무대체질이었던지 다양한 장르의 춤과 뛰어난 가창실력... 모든 가족이 하나된 모습으로 마음껏 끼를 발산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이렇게 즐거운 가족캠프를 위해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담당 사회복지사 정 옥〉



한사랑신규후원자

(2002. 6. 1. ~ 2002. 8. 31.)

- 서울 : 김동인 김중수 김 현 김현수
나삼임 류현순 박대원 박일남
방기훈 손영만 송기열 우영숙
이순예 이순자 이종호 이화경
이희숙 임경철 장형규 정병현
정치원 조영준 최민규 최순분
최영일 현기주

광주 : - / 부산 : 정동호 / 대구 : -

알리안츠제일생명의 집

금년 여름 쉼터는 조용했습니다. 새로운 식구들이 많아져 복잡하기는 했지만, 자원봉사자들이 없어 아이들의 무료함을 조금이나마 달래줄 수 있었던 놀이 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개학을 하면 학생 자원봉사자들이 오겠지만, 쉼터 담당자로서 작은 소망이 있다면 꾸준히 아이들과 놀아줄 수 있는 자원봉사자 있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유아교육 등을 전공한 전문적인 자원봉사자가 오시면 금상첨화겠지요. 봉사 가능 시간은 매주 화,목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766-7671~3으로 연락주세요.

〈담당 사회복지사 조혜린〉

환아들이 웃을 수만 있다면 우리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동아대학교의 소아암 봉사동아리 '도리도리'의 회장 남현석입니다.

그리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저번에 도보국토순례행사 때 서울까지 걸어갔던 학생입니다.

선한 이웃이라... 제가 이런 글을 쓸 자격이나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지만 우리 동아리의 모든 회원

들을 대표해서 쓴다는 생각으로 몇 자 적어볼까 합니다.

'도리도리'의 회원 전원은 동아대학교 학생이고 동아대학교병원에서 치료중인 소아암

어린이들을 위한 동아리입니다. 정기적으로 바자회도 하고 캠프도 가지만 '도리도리'의 가장 중요한 활동은 병실에서 늘 같은 사람들만 만나고, 이야기할 상대가 없는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즐거움을 주는 것입니다.

지난 겨울캠프를 갔다운 후, 한 아버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들이 정말 고맙고 부러워...당신들이 있어서 정말 힘이 되는 것 같아..~" 라고 말이죠.

정말 감사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것에 비해 그 아이들로부터 얻는 것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감사함에 대한 것이 아직은 미흡하기 때문에 정말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송구스

럽기 짝이 없습니다. "조금 더 열심히 해 주세요~"라고 들리는 것 같아서 많은 책임감도 느껴집니다.

올 여름 국토도보순례를 하면서 경북대병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병실에 들어서는 순간 차마 그 아이들을 쳐다 볼 수 없었습니다. 동아대학교병원에서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을 저의 보물들이 생각이 나서 그랬습니다.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하고 그저 옆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제 자신에게 화가 나서 그랬습니다. 지금은 내가 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무 것

도 없지만 '언젠가 언젠가..'를 마음속으로 외치며 그냥 그곳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한지

몇 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내가 정말 소중한 보물을 발견한 것이라곤 할 깨닫습니다. 보물을 발견하게 된 것에 항상 감사하고, 또 지금은 그 보물들을 내가 소중히 아끼고 감싸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소아암 어린이들을 보면서 배우고 느꼈던 모든 것들을 가슴에 새기면서.. 내가 받은 만큼.. 내가 배운 만큼.. 아니, 그보다 더 많이 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지금은 많이 모자라지만.. 나의 보물들 곁에 항상 좋은 사람으로, 보고싶은 사람으로 기억 될 수 있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소아암 어린이들을 위해 좋은 분들의 도움이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항상 웃읍시다...^^ 내 웃음으로 다른 사람이 미소지을 때까지....

♥ 한뜻후원자 소식

감 사 합 니 다.

신규회원 소개(2002. 6. 1. ~ 2002. 8. 31.)

김준우 김지호 남성희 럭키생명수도팀센터 최동양 최석균

♥ 수호투사 소식

신규후원자 소개(2002. 6. 1. ~ 2002. 8. 31.) : 등록번호순입니다.

김순주 최희진 노미연 허정애 조철운 송재혁 박경옥 김진완 최두이 김의철 여운옥 김현숙 이주석 국지인 이광명 김정래
 고 현 김미희 박문희 전세은 김호영 엄영미 김민영 김혜숙 황혜영 여운옥 김광태 임성호 손성기 김민우 조승미 정성혜
 이광원 황중연 구인근 권혁성 안광오 조성철 김연화 손민정 손은하 오창훈 임오영 최희정 김경한 김용석 배경희 백경희
 이경호 정명희 조현진 권 식 김철겸 박은영 박재성 백동희 선희정 송경희 이대진 이선미 이영대 임은경 김베드로
 김정숙 김지하 김행덕 김세환 김정자 이정호 김영우 설숙자 엄항섭 신기섭 최경숙 박형준 박균영 김소임 엄진선 윤봉화
 강성찬 오정국 박수빈 윤명선 김종오 정성덕 김영인 김수자 임상택 황민숙 이지은 강은주 윤유정 배호달 최애경 박영선
 우원식 박현문 김경아 이경자 정재숙 조재신 김춘수 장정아 장미경 김영세 김성희 김철호 윤은향 이현주 조천미 이향주
 이혜은 강은희 김민주 서민정 박채영 문성미 김상태 박희정 김남현 강지나 박수진 조희경 김문정 이재우 홍성윤 채만규
 윤경식 손민아 김상재 김규성 정문호 김석근 김미현 박경호 이종만 강인숙 김창호 이춘호 이판돌 김무영 한동현 윤명숙
 김형숙 이상정 김정웅 허 혁 전대홍 이문식 백미옥 김경선 한정훈 이미영 김창호 김학래 강영성 박강욱 심성보 이근창
 박종렬 하기태 만철규 박철수 길영욱 백주너 곽종천 지영곤 박무진 최용규 박해진 하임정 김해수 이웅혜 최도철 김상훈
 오정옥 이상신 곽호기 박정옥 장철웅 이현정 김미희 안광식 정윤필 김후남 김명주 서성하 이원호 이선미 편성희 이대희
 이정희 이상환 박용준 이귀선 박점복 조미옥 조기도 박종우 조봉국 김진한 배명화 이순이 이수현 김혜경 최옥규 조대순
 박종만 류호점 이장환 박영숙 구선혜 김두현 김은임 남기연 심성희 심지은 이승훈 이정민 이 한 정우태 주 경 한미숙
 김옥미 차순덕 류승준 김은영 조은진 김진한 권오상 박민정 강종식 임채술 남춘식 이미선 송윤복 김성률 김삼수 강진석
 허경일 김유종 송유경 임원빈 유병희 전은희 정유라 원서영 임승희 최현식 김선옥 조영옥 김경숙 강선희 김현숙 조영수
 유도화 윤예록 정은선 장영동 이준하 편춘자 김승애 김은희 석제범 박위순 김혜자 조인숙 한인숙 임병훈 한마음희
 박영우 이현숙 김상희 이영미 사랑희 전창숙 강용선 최석순 이구화 박상용 송계심 최장운 조경아 임청희 한광순 백경노
 김상욱 남춘식 김매지 박계원 권명식

1. AMC Korea, 부산체신청, 충청체신청에서 단체로 등록을 해주셨습니다. 덕분에 500구좌가 넘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서 1,000구좌 달성 하겠습니다. 새로 신청해주신 수호투사님, 이미 수호투사가 되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2. CMS를 신청해주신 수호투사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우편으로 발송해드린 CMS 동의서를 작성해주신 후 재단으로 보내주세요.
3. 자동이체로 신청하신 수호투사님들 중 아직 은행에 못 가셨다면 CMS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재단으로 전화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형제캠프 우리가 만드는 세상



생활조끼리의 첫만남!

1조>블랙홀, 2조>파란악마, 3조>작은별, 4조>새싹... 다들 기억나죠?

흰모자 선생님을 공격하라~



나의 꿈에 대해 생각하고 표현해 보았던 한 친구!

"20년 후 전 간호사로 일하고 있을 거예요"

"소아암이 알고싶다"

소아암에 대한 지식을 OX게임과 윷놀이를 통해 재미있게 배워보는 시간!



"이야기상자"

나의 경험과 느낌을 친구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영차영차~~~ 수중줄다리를 하는 모습



제2회 소아암어린이 형제캠프는 **행정자치부**에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미니올림픽"

함께 하면 즐거움이 더욱 커져요!

"다함께 노래를"

가족 안에서의 나의 역할을 생각해보고
노래를 만들어보았습니다.
머리를 모으자(하나보다 둘이 낫지!)



세상의 하나뿐인 나만의 목걸이를 만들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비로 인해 캠프파이어를 하지 못했습니다.
불꽃놀이로나마 아쉬움을 달래봅니다.



천사백운동 지원환아

천사백후원금을 지원받은 어린이들을 소개합니다.



정승우(남/만 1세)
횡문근육종 / 삼성서울병원
2002년 7월 자가조혈모세포이식 시행



문석진(남/만 3세)
신경모세포종 / 서울대학교병원
2002년 6월 자가조혈모세포이식 시행



이재익(남/만 5세)
신경모세포종 / 삼성서울병원
2002년 8월 자가조혈모세포이식 시행



박현진(여/만 1세)
만성호산구성백혈병 / 전남대학교병원
2002년 9월 자가조혈모세포 이식 시행



장 한(남/만 5세)
신경모세포종 / 삼성서울병원
2002년 7월 자가조혈모세포이식 시행



박광명(남/만 4세)
신경모세포종 / 삼성서울병원
2002년 8월 자가조혈모세포이식 시행



신재훈(남/만 4세)
신경모세포종 / 삼성서울병원
2002년 10월 자가조혈모세포이식 시행예정



이지훈(남/만 3세)
신경모세포종 / 삼성서울병원
2002년 8월 자가조혈모세포이식 시행



김재휘(남/만 7세)
신경모세포종 / 영남대학교병원
2002년 9월 자가조혈모세포이식 시행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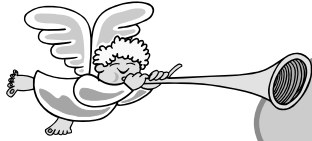
김효린(여/만 2세)
윌름종양 / 삼성서울병원
2002년 9월 자가조혈모세포이식 시행



이대민(남/만 3세)
양측성망막모세포종 / 삼성서울병원
2002년 7월 자가조혈모세포이식 시행



조민서(여/만 2세)
신경모세포종 / 삼성서울병원
2002년 10월 자가조혈모세포이식 시행예정



천사백운동 참여현황 (2002. 8. 31. 현재)

참여후원자 : 2,945명 구좌수 : 13,003구좌

천사같은 이웃을 소개합니다. (2002. 6. 1. ~ 2002. 8. 31. 까지 처음으로 후원금을 입금하신 분들)

예금주 : (재)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 타은행도 동일

경남은행(514-07-0175564)

부산은행(070-01-021379-8)
류수환

제일은행(225-20-385050)
강무성

광주은행(200-107-315315)

서울은행(16508-2945601)
서봉순

조흥은행(367-01-192434)
최 현

국민은행(031-01-0414-356)
오창훈 이민영 이영대

신한은행(394-01-000694)
강석구 김임술 양상명

주택은행(488401-01-001485)
한애숙

기업은행(090-000260-04-022)
배경희 임은숙 최점숙

외환은행(141-22-00799-6)
김종은

하나은행(144-121835-00105)

농 협(029-01-170940)
김은숙 이영선 정우정

우리은행(112-04-112571)
고배근 이락희

한미은행(100-59711-251)

대구은행(004-05-179828-001)
김선자

우 체 국(012989-01-003313)
새예루살렘교회 연명애 정안수 정운선

지 로(6981440)
기정숙 김찬주 노은아 박순임 박재동
백경희 손서영 이익준 이종남 채영수
한규태 황선희 탐동15회



알립니다

연말정산용 영수증이 필요한 후원자님들께서는 재단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바로 발급해 드리겠습니다.
참, 지로영수증의 경우, 연말정산용 영수증으로 사용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사랑의 모음터

◆사랑의 헌혈증서 (2002. 6. 1. ~ 2002. 8. 31.)

권진욱(4) 그린시티(3) 김유재(3) 故모수연(301) 베스티안병원(65) 유진하(351)
이규진(1) 정기호(2) 정창연(2) 채성석(19) 최단비(27) 포천소방서(15)
한희구(1) 황순석(9)

◆특별 후원금

2002년 6월 구의교회 100,000 부산은행 200,000 서상부 100,000 오영섭 100,000
AMC 6,200,000 철도회원협회 300,000
7월 구의교회 100,000 부산은행 100,000 세계태권도연맹 정운용 300,000
우정사업본부 12,000,000 이마트만촌점 206,500 지구촌교회 조봉희목사 10,000,000
철도회원협회 180,670
8월 경북대병원 달리기동호회 100,000 구의교회 200,000 김종재 1,000,000
노준영 111,000 마산우체국 160,000 박경덕 100,000 부산은행 100,000
부산체신청 100,000 여의도우체국장 100,000 조지혜수호천사 7,890,465
철도회원협회 156,810 최두이 100,000 카우저스라우더 한인연합교회 690,000


◆후원물품 (2002. 6. 1. ~ 2002. 8. 31.)

故김상렬 母 각종양념재료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기청정기 **권진욱** 문화상품권(3)
김정민 父母 쌀 **김건창** 父母 화장지, 세제 **박은영** 外 祖 母 마늘 **삼성생명** 동작지점 공작재료
삼성생명 동부지원센터 인형(5), 필통(5) **신원에이전시** 동화책(10), 만화책(16)
심혜진 비디오(2), 동화책(3) **이건수** 식기세척기 **익명** 수건(28)
(주)아피아 형제캠프티(48), 보조가방(50) **최영석** 차약(25), 비누(10), 양념재료

사랑터(봉사모임)에서는 알리안츠제일생명의집에 머무르는 어린이들과 어머님들을 위해 매월 식료품을 후원해주고 계십니다.

◆물품 후원 안내

우리 재단은 비품구입비를 절약하기 위해 사무국과 재단이 운영하는 쉼터에 필요한 물품을 기증 또는 무상 기탁을 받고 있습니다. 보내주시는 기증품 하나하나는 큰 도움이 됩니다.

2002년 가을호는  **동신제약주식회사** 에서 제작지원해주셨습니다.

발행인 / 송상현 편집인 / 안효섭 발행처 /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주소 / 110-460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114-3번지 전화 / (02)766-7671~3 팩스 / (02)766-7674

예금구좌 / 310-03-002396(조흥은행) 6981440(은행지료) 012989-01-003327(우체국)

090-000260-04-015(기업은행) 001-01-2353-890(국민은행) 029-01-176943(농협)

예금주 / (재)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